

<2015.01.05.>

북동양신문

2015년 01월 05일 월요일 016면 종합

# 람사르등재-생태관광지역 선정 '생태 寶庫'



고창 운곡습지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종 선정, 관심을 끌고 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 고창 운곡습지

남쪽의 비무장지대로 비유되는 운곡습지는 한 때 농경지로 마을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1980년대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공급 목적으로 습지 주변 9개마을이 이주, 폐경작지로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저층 산지습지이다. 이렇게 인간의 발길이 끊긴 30년동안 자연은 놀라운 재생력으로 지금의 운곡습지를 만들어 냈다. 고창 내륙지역과 고창갯벌을 잇는 중간지인 운곡습지는 고창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심장으로 힘차게 박동하고 있다.

고창 운곡습지는 2011년 3월 14일 아산면 운곡리 일원 1.797㎢면적에 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환경부)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4월 7일 람사르습지로 등재되었다. 또한, 2013년 5월 28일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운곡습지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문명과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될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도 비례하여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이 국가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운곡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0년에 조사된 527종에서 2013년 337종이 증가한 총864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창 내륙-갯벌 잇는  
운곡습지 864종 생물종 서식  
습지보호 효과 중수도 늘어

아산 용계마을 생태관광  
성공모델 환경부 지정이어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역  
도내 최초 선정 눈길



된 19곳 중 매년 3~5곳을 선정해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고창 운곡습지 864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식 종수 증가율도 63.9%로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대부분의 습지에서 생물종이 101종에서 최대 337종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운곡습지에서 추가 발견된 생물종 중 멸종위기야생생물은 황새, 구렁이 등 4종(1급 1종, Ⅱ급 3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 용계마을 생태관광 성공모델 선정**

아산면 용계마을이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난 7월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은 아산면 용계마을을 포함해서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홍리, 인제 생태마을 총 4개 지역이다. 환경부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엄선하여 결정했다.

용계마을은 운곡습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특성화 지역이다. 생태관광

은 자연생태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을 보전하며 조화로운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 휴식이다. 용계마을은 55가구 8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추진에 대한 주민과 군의 강한 의지가 담긴 지역이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용계마을 인근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문화자원이 있다.

박우정 군수는 “아산면 용계마을이 환경부의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정경한 명품 고창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아 아산면 용계마을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교육 및 홍보 강화, 주민 주도 생태관광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운곡습지 도내 첫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고창 운곡습지가 전라북도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국 17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난달 22일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를 포함하여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괴산 산막이옛길·괴산호,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서귀포 효돈천·하례리마을 등 총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13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담, 홍보, 재정적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고창군은 2010년부터 운곡습지 일원에 총사업비 202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복원사업 및 개선지역 복원사업,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운곡습지는 더욱 더 생태자원의 보고로 살아남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생태체험 위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1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도내 최초로 고창 운곡습지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인돌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문화와 생태가 함께 어울어진 생태관광을 적극 육성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면용계마을은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민박, 생태체험, 마을특산물 판매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을로 금년 1월에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과 함께 7월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되었고, 9월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성공모델지역 마을대표 및 지자체장과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에,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에 힘입어 향후 생태관광을 통한 주민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